

#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라”

### 전북도교육청, 전국 첫 ‘허클베리핀 진로탐험’ 시작 중3·고1 대상 활동비 지원...개인·동아리별 신청 가능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탐험하게 하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단순한 진로체험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는 ‘허클베리핀 진로탐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인 허클베리핀 진로탐험은 전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전북지역 중3과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허클베리핀은 이전 학년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진로체험을 구체화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목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계획-실천-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개인별 또는 8명 이내의 동아리별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 계획을 수립하되 주말이나 연휴, 방학 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 규모와 형편에 따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도 가능하다.  
중3은 300개 학급, 고1은 200개 학급을 선정해 학생 수를 고려해 학급별 200만원 내외, 총 10억원 규모의 진로탐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담임교사의 신청예산을 학년부장이 취합해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학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솔자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인솔 담당자를 확인해 지정 운영해야 한다.  
방극남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학생들이 개인별, 동아리별 진로 찾기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주시, 전통·문화·역사 연계 체험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 시, 한옥마을 안내소에 문화체험·해설투어 예약 윈스톱서비스

전주시가 전주만의 전통, 문화, 역사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를 찾은 수학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서 전통문화체험과 해설 투어 예약이 가능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윈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비빔밥·잡채·전통 떡 등의 음식 체험과 한지 뜨기·한지함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후 해설사와 함께 전주 대표 관광명소인 한옥마을과 경기전·오목대·전동성당 등

을 둘러보며 깊이 있는 해설을 학교별, 학급별로 들을 수 있다.  
또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선비들의 활쏘기 체험인 향사례(국궁), 선비들의 의복을 입고 인사하는 의례를 배우는 사상견례 등 선비체험과 판소리·가야금 공연, 도자기 만들기, 전통공연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어 1박 2일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시는 각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이 같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주를 방문해 해설 투어에 참여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204개 학교 1만6466명이며 이 가운데 73개 학교 4854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명이 숙박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아울러 1823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명문 고등학교인 래플스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도시 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수학여행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공격적인 수학여행객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시군평가

## 남원시·무주군 최우수 기관 선정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남원시와 무주군이 최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2018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을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해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해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수, 제조업체수 및 산업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에서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남원시, 2위 정읍시, 3위 완주군 ▲인구수 8만 이하 그룹에

서는 1위 무주군, 2위 부안군, 3위 고창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남원시의 경우 13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진화성 분야, 관내 기업 동향파악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얻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및 개인표창을 수여하고,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1위 5000만원, 2위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올 30대 민간보급 계획...최대 1500만원까지

고창군은 전기차구매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 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군은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 접수된 경우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식으로 1순위(배정 9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2순

위(배정 21대)는 일반인이다. 1순위 신청 미달 시 2순위로 배정된다.  
군은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신청만 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특별전 연중 이어진다

### 2월부터 ‘동행’·6월엔 서울예술의 전당 ‘조선왕실, 그 영롱한...’ 등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이 기존에 진행 중인 전시 외에도 올해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을 연다.  
민화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민화뮤지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동행’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민화대전’과 조선민화박물관의 ‘전국민화공모전’ 역대 수상자 작품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역대 왕의 초상화인 어진과 배갓모 등 왕실에서 사용되던 물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조선왕실, 그 영롱한 빛을 들여다 보라’ 특별전도 열린다.  
오는 6월부터 4개월간이다.  
서울예술의전당에서도 한국민화뮤지엄의 민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한기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민화의 비상(飛上)’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화 ‘삼고초려도(三顧草廬圖)’

역대 ‘대한민국민화대전’을 통해 강진군 소장품이 된 수상작 중 일부와 한국민화뮤지엄 조선시대 진본 민화 소장품이 함께 전시된다.  
관장은 “2019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민화뮤지엄과 강진군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강진이 청자뿐 아니라 민화의 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영광군, 고속전기차·초소형전기차 등 106대 공급

영광군은 올해 고속전기자동차 66대, 초소형전기자동차 40대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급 대수는 작년보다 16대 증가했다.  
초소형전기차 보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가 보급 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고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된다.  
지원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쏘울 등 승용 부문 14개이며 최대 167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소형전기차는 840만원 정액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까지 총 300여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사기혐의’ 피소 최낙삼 정읍시의원 무혐의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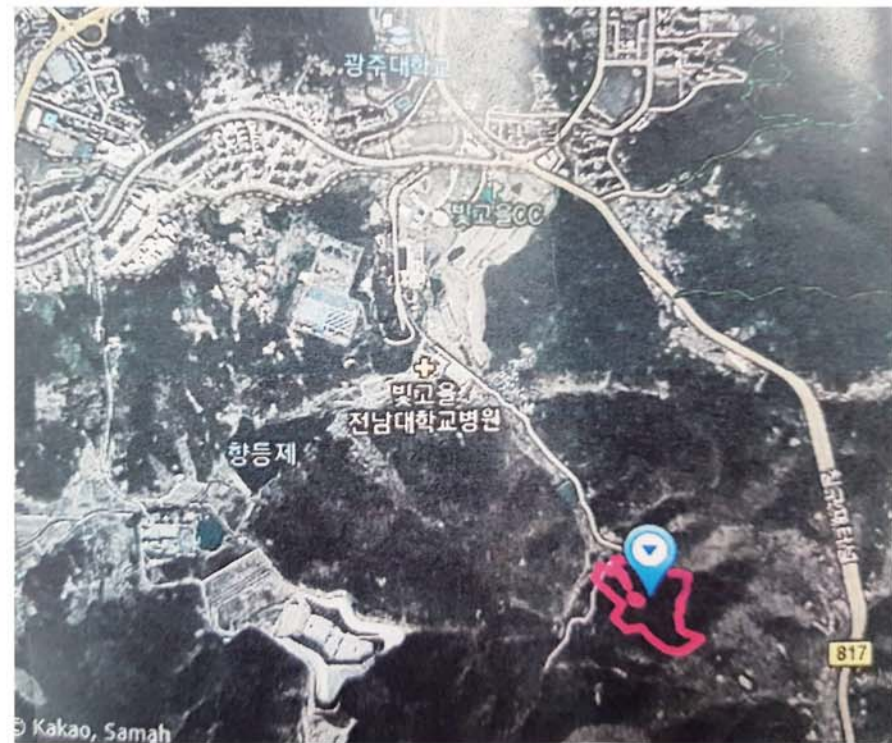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낙삼 정읍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전주시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사업과 관련,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 등)로 고소당한 최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정부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2500만원을 뜯어갔다고 최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또 최 의원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A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30일 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최 의원을 고소한 A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